

인물 통해 되돌아 본 시대와 역사



체 게바라와 윤상원

서기문 작가 '미술과 시대정신'전

츨스키와 이연희·김어준과 박지원...

시공간 초월 역사속 인물 한자리 소환

‘동행’ 시리즈... 19일까지 신세계갤러리

“작품보며 관람객들이 질문 던지길”

시기를 문 체 게바라와 말간 얼굴의 윤상원이 택시에 동승했다. 뒤로 보이는 건 전남도청 건물. 분수대 주변으로 물러 브레이드를 타는 아이와 무언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남녀의 모습이 보인다. 무고한 사람들의 무죄를 밝히는 박준영 변호사는 드래프스를 적 극 변호했던 소설가 에밀 졸라와 함께 택시에 탔다.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리는 있는 서기문(전남대 예술대 교수) 작가의 ‘미술과 시대정신’(19일까지)전은 관람객들을 역사 속으로 데려간다. 시공간을 초월해 그가 불러낸 동서양 인물들은 ‘작’을 이뤄 이야기를 건넨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정의와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려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정신을 지켜온 인물들이다.

맏고 청아한 극사실주의 수채화로 잘 알려진 서 작가는 2007년 ‘광주정신전’을 통해 5월 인물을 호출하며 사람에 관심을 갖게 됐다.

“광주 문제를 언젠가는 짚고 가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채 감이라고 할까요. 작가는 시대와 삶의 현장을 외면해서는 안돼요.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작가는 비판하고 또 치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은 무형의 것이고, 그림 가시화시키는 방법으로 ‘인물’을 택했다. 인물의 표정과 눈빛에 영혼을 담은 작업이다. 작가는 부채 감을 다 털 수는 없었지만 광주 정신 전사가 인물을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새로운 작업의 출발점이 된 것만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2008년 달리와 프로이드를 그리며 처음 시작한 ‘동행’ 시리즈에는 ‘택시’가 등장한다. 한 곳에 존재하기 어려운 인물들을 만나 게 하고, 그들이 역동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담은 정지다.

2017년 근작들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는 김구와 윤원, 닥터 노먼 버순과 의사 강용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델라가 함께 택 시를 탔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는 택시에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함께다. 원색의 양복을 차려 입은 전태일 열사는 일군의 서양인들과 어디론가 떠나려한다. ‘노동자의 날’을 만든 미국 헤 지마켓(1886) 사건의 희생자들이다.

또 다른 시리즈인 ‘대화’에서는 손석희 앵커와 미국 탐사보도의 대가 로버트 그레이의 실제 주인공인 로웰 버그만, 석학 츨



김어준과 연암 박지원

스키와 이연희 선생의 모습도 보인다.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 김어준과 동행한 이는 연암 박지원이다. 위낙 전방위로 활동하는 인물이라 ‘누구와 함께여?’ 어색하지 않은 그를 연암과 한 화폭에 담은 건 거리낌 없는 자유와 뼈뚫한 사유로 하위의식과 위선을 타파했다는 생각에서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작품은 팔레스타인에서 음악 공연 등을 열었던 에드워드 사이드와 바렌보임의 ‘동행’이다. 무엇보다 서 작가의 특징인 수채화로 그려낸 바렌보 임의 지휘 모습이 인상적이다. 세월호를 소재로 평범한 인물을 그린 ‘좋은 이웃’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서 작가는 수채화, 유화, 아크릴 등으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풀어 냈다. 인물에 주목하다 자칫 놓치기 쉬운 게 이들 작품의 배경 이다. 인물들 이야기를 훨씬 풍성하게 하는 장치다.

“함께 할 수 없는 인물을 상상력을 더해 한 자리에 모으는 작업 은 상대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관람객들의 공감을 끌어낸 다음,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요. 또 왜 저 사람이 한 공간에 있을까 질문을 하는 것도 기대합니다. 시대 정신은 곧 생각 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공간에서 도덕적 위용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실천해왔던 이들을 떠올리며 시대를 돌아보자는 마음으로 준비한 전시입니다.”

그에게 ‘동행’하고 싶은 이를 물었다. 저항 정신을 가졌고, 탁월 한 해석가였던 미술평론가이자 소설가 존 버거가 우선 떠오른다는 답이 돌아왔다. 지금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인물은 신영복이다. 그를 누구와 ‘동행’ 시킬지 고민하며 작업을 이어갈 생각이다. 전시장에선 자연스레 역사 공부도 된다. 화폭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싶게 만드는 전시다. 매일 도슨트 설명회가 열린다. 문의 062-360-127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을 광주미술상에 신호운 작가 창작지원금 1000만원

신호운 작가가 제23회 광주미술상을 수상했다.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이사장 배 동환)는 7일 오후 3시 광주 YMCA 제23 회 미술상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수상자로 신 작가를 선정했다. 수상작가에게는 창작지원금 1000만원이 주어진다.

광주미술상은 지난 1995년 지역에 연고를 둔 원로 중견미술인들이 후배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운영하는 상으로 매년 대상자를 공모,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순수미술학부를



졸업한 신 작가는 2016년 상해 국제 인쇄 주간 특별전 금상, 2015년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2013년 한국 종이예술작품공모전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홍콩 문화기획사 ‘Platform D’art’의 전속작가다.

광주와 북경의 작업실을 오가며 왕성한 활동중인 신 작가는 “지역의 여러 선배님들이 주는 상이어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더욱 열심히 정진해 광주 미술상의 권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나 자신도 후배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선배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뮤지컬로 만나는 명작 단편소설 3편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선임 절차 철회하라”

광주민예총 시민 공청회서

총체적 쇄신책 마련 촉구

광주민예총예술총연합회(광주민예총)는 7일 “광주시는 광주시립극단 새 예술감독 선임 절차를 철회하고 시민사회 공청회를 통해 총체적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민예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을 비롯해 단장, 공무원 등 문화예술 관련인 4명이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파문은 몇사람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만으로 넘길 수 없는 뿌리깊은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광주시 문화예술보조금 및 문화예술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지역예술가 및 시민단체와의 공청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문화예술회관측은 “새 예술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이달 안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지만 그에 앞서 타 시·도의 사례를 수집하고, 단원들과 극단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쿵작 두 번째 이야기-얼쭈’

8·9·10일 ACC 어린이극장

한국 대표 단편소설 3편이 가족 뮤지컬로 재탄생한다.

가족 뮤지컬 ‘쿵작 두 번째 이야기-얼쭈’가 오는 8일 오후 3시, 오후 7시30분, 9일 오후 3시, 오후 7시, 10일 오후 3시, 3일간 ACC 어린이문화원 내 어린이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판소리 하는 유래 발랄 당나귀 ‘판당’이 내레이터

가 되어 극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이효석의 ‘매밀꽃 필 무렵’, 김유정의 ‘봄밤’, 오영수의 ‘고무신’ 등 3편의 소설이 라이브 악사들과 무대에 오르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진솔한 이야기와 ‘사람’이라는 보편적 메시지를 통해 삶에 대한 깊이 담겨 있다.

특히, 해주아리랑, 밀양아리랑, 삼주아리랑 등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민요, 한 국무용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공연은 90분 동안 진행되며, 티켓은 전석 1만5000원이다. 문의 1899-5566.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한소리회’ 정기공연 내일 광주아트홀

한소리회가 오는 9일 오후 5시 광주아트홀에서 제37회 정기공연 ‘바람, 구름, 그리움 그리고 사랑’을 개최한다.

프로그램은 김주원의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 김규환의 ‘남촌’, 이수인의 ‘그리움’, 이홍렬의 ‘꽃구름속에’ 등 국내 곡과 라흐마니노프의 ‘그 노래를 부르지 마오’ 등 13곡이다.

출연진은 총감독 박미애(광주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를 필두로 소프라노 이나연, 장희정, 윤희정, 임영란, 박정연, 조



박미애

장희정

현서씨 등이 출연한다. 피아노 반주는 장희정씨가 맡는다. 문의 062-227-7441.

/전은재기자 ej6621@

‘유망주 2017’ 9·10일 포럼

청년문화기획자 육성사업 ‘유망주 2017’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전국 청년문화기획자 네트워크 포럼 ‘청년 보릿고개’가 9일 오후 2시부터 10일 오후 1시까지 대인시장 및 광주시 일대에서 열린다.

참여자는 ‘유망주 2017’의 광주 청년문화기획자 10명과 서울, 광주, 원주, 춘천, 부산, 울산, 청주 등에서 청년문화기획자로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활발하게 활동 중인 청년들 20여명이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2017-2018
신양파크호텔

겨울이 이야기

객실패키지 | 2017.12.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1.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